



진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주 임 신 부 정재준 사도요한
보좌 신 부 정 혁 요셉(청년부)
강인석 F.하비에르(유·초·중·고등부)
박경석 보스코 수사(사회사목)
전 교 수 녀 정은자 한나(원장)
김미리 에블린(유·초등부)
최은정 요셉피나(중·고등부)
꿀벌 유치원 최향숙 베로니카 수녀
요셉어린이집 김아람 소화데레사 수녀
총 회 장 황태영 프란치스코
연 령 회 장 김영길 바오로 010-3719-0036

● 알 림

- 오늘은 해외원조주일 2차헌금이 있습니다.
- 다음 주일(1/31)은 오라토리요 2차헌금이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교구의 지침과 본당 미사
 1. 1월 18일(월)부터 시작
 2. 모든 미사 50명 참석 가능(전례 봉사자 제외)
 3. 주일 미사만 영상 송출 및 미사 후 성체분배 있음
 4. 평일 미사는 영상 송출과 미사 후 성체분배 모두 없음
 5.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장 가능
- 주일 미사 지역별 참석 안내

	1월24일	1월31일	2월 7일	2월14일
토요주일	오시는 순으로 50명			
06:30	3지역	4지역	1지역	2지역
10:30	4지역	1지역	2지역	3지역
12:00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19:00	2지역	3지역	4지역	1지역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봉성체 신청 받습니다.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개별 예식)
- 미사 참례시 주의사항
 - 성당 정문을 이용합니다.
 - 마스크를 코와 턱이 덮이도록 똑바로 착용합니다.
 -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받은 후, 키오스크에 바코드로 출입을 기록합니다.
 - 바코드가 없는 타본당 신자는 수기로 기록합니다.
 - 손 소독을 하고 입장합니다.
 - “X”라고 써있는 곳은 앉지 않습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주님 봉헌 축일(2월 2일 화요일)

- 봉헌 초 축복 (6:30 미사 중)
- 1년간 가정에서 사용할 초를 축복합니다.
- 가정 기도초 : 초를 구입하여 미사중에 축복을 받습니다.
- 제대초 봉헌 : 사무실에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봉헌 축일’은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성전에 바친 것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이날은 하느님께서 봉헌하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자신을 봉헌하자는 뜻에서 1년 동안 성당과 신자들이 사용할 초를 봉헌하고 축복합니다.

* 주보성인 F.살레시오 대축일 및 성 요한 보스코 대축일 미사 안내 *

- 주보성인 F.살레시오 대축일 미사 : 1/24(일)
- 성 요한 보스코 대축일 미사 : 1/31(일)

● 설날 합동 위령미사 안내 : 2/12(금)

- 합동 위령미사 예물은 1/24(일)부터 성전에 비치한 봉헌함에 넣으시거나 사무실에 접수하십시오.

설날(2/12)
미사 시간

아침 06:30, 낮 12:00

- 낮 12시 미사 후 세배와 나눔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올해는 없습니다.

● 본당 주일미사 유튜브 생방송 접속 방법 안내

1. 네이버에서 “유튜브”를 검색하거나
2. 스마트폰의 유튜브 어플을 실행합니다.
3. **dybskor** 이나 **구로3동성당** 을 검색합니다.
4.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구로3동 성당의 실시간 생방송 화면을 찾아 시청합니다.

● 주일 미사 시청 후 영성체 안내

1. 본당의 주일 미사를 유튜브로 시청하시거나
2. 평화방송 미사(6시, 12시, 18시)를 시청하시고
3. 주일 미사 후 30분 이내에 카페 앞으로 오시면 성체를 모실 수 있습니다.

● 다음 주일(1/31)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11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1월13일 ~ 1월19일)

• 교 무 금		4,655,000 원
• 주일헌금		2,346,600 원
• 감사헌금	심재순10만원 서귀향 5만원 김귀옥 5만원 익 명10만원 익 명10만원 심광술20만원 동구로새마을금고 백미(20kg) 20포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 설	복 사	독 서
1/24	이영민	조홍환 이응남	안상록 김선미
1/31	이인옥	최영만 신종구	최웅조 구민서

● 성체 분배자 명단

당분간 게재를 중단합니다.

● 주보 7면

-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교리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교리

세상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

복음의 기쁨 사랑의 큰 계획

교회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 사랑의 큰 계획에 따라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류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누룩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세상에 하느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그 길을 다시 걸어갈 용기와 희망과 힘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보답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자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이가 환대와 사랑과 용서를 받고 복음의 선한 삶을 살도록 격려를 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자리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2013년) 114항

복음의 기쁨 마지막 종합

분명히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그리스도교의 도덕적 메시지의 핵심을 보여 주려고 할 때마다 이웃 사랑이라는 근본적 요구를 제시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 13,8) 이는 바오로 성인의 말씀으로, 그에게 사랑의 명령은 율법의 종합일 뿐 아니라 바로 율법의 핵심과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율법은 한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곧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계명입니다. (갈라5,14) 바오로는 자신의 공동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랑을 키우는 여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여러분이 서로 지니고 있는 사랑과 다른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도 주님께서 더욱 자라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테살 3,12) 마찬가지로 야고보 성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떤 계명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 성경에 따라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지고한 법을 “ (야고 2,8) 이행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2013년) 161항

찬미받으소서 취소하지 않는 사랑

우리의 공동의 집을 보호해야 하는 긴급한 과제는 모든 인류 가족을 함께 모아 지속 가능하고 온전한 발전을 추구하도록 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께서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창조주께서는 사랑의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인류는 여전히 우리의 공동의 집을 건설하는 데에 협력할 능력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2015년) 13항

22. 교회에는 왜 사회 교리가 있나요?

인간은 철저하게 사회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땅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도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느님은 당신 백성에게 인도적인 질서와 계명을 주셨고, 백성들은 그것으로 의롭고 선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정의로운 관계와 불의한 관계를 구별할 수 있고, 정의로운 질서를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정의가 비로소 사랑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깨달습니다. 연대성에 관한 사회 교리의 개념은 그리스도교의 이웃 사랑에서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